내항역사문화공간 面단위 문화재로

공간 내 뜬다리 부두 등 5개 개별문화재 등록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군산 내항 일원이 등록됐다.

근대문화유산의 입체적 보존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초로 도입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인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전북 군산 내항 일원이 등록됐다.

등록문화재 제719호인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은 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마을, 경관 등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이다.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장미동 일원 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공간 내의 뜬다리 부두-부잔교(등록문화재 제719-1호), 호안시설-항만 석축구조물(등록문화재 제719-2호), 내항 철도(등록문화재 제719-3호), 구 제일사료 주식회사 공장(등록문화재 제719-4호),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등록문화재 제719-5호)가 개별 문화재로 등록됐다.

등록된 문화재들은 역사문화자원 재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산 내항의 경관을 보존하여 청소년들의 교육 장으로 활용하고, 지역문화의 중심 거점지역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된 '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상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 은행 군산지점' 및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어 역사문화체험 공간으로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양수 시 문화예술과장은 "최초의 면(面) 단위 등록인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여름휴가 '테마지도'와 함께하세요

산림청-카카오, 휴가철 방문할 숲속여행지 14곳 추천

산림청은 카카오와 함께 산촌생태마을과 국립자연휴양림 각 7곳을 휴가철 방문할 숲속여행지로 선정하고 카카오맵을 통해 테마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테마지도 서비스는 전국의 맛집이나 낚시, 레저 등 주제별 다양한 장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진, 방문자 후기, 이용정보 등과 함께 감성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소개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테마지도 서비스로 제공되는 곳은 산림청과 카카오가 '내게 지금 필요한 힐링, 산촌생태마을'과 '동화 속을 거니는 듯한 경험, 국립자연휴양림'이란 주제로 선정한 대표적 휴가철 여행지들이다.

선정된 산촌생태마을은 ▲고대산 산촌마을(경기 연천) ▲달빛 소리마을(강원 인제) ▲곤드레 한치마을(강원 정선) ▲산채 건강마을(충북 제천) ▲세동리 웅치골마을(전북 진안) ▲축령산 편백숲 치유마을(전남 장성) ▲산달뱅이마을(전남 광양) 등이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유명산휴양림(경기 가평) ▲대관령휴양림(강원 강릉) ▲덕유산휴양림(전북 무주) ▲상당산성휴양림(충북 청주) ▲황정산휴양림(충북 단양) ▲오서산휴양림(충남 보령) ▲변산휴양림(충남 변산) 등이 선정됐다.

산촌생태마을은 8일, 국립자연휴양림은 10일부터 '카카오맵'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테마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촌생태마을은 산림으로 둘러싸인 곳에 터전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친환경 농산물 및 임산물 생산의 중심지이자 전통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관광지다.

국립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숲과 계곡, 통나무집, 산책로 등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 산림휴양시설을 갖추고 휴식과 치유를 제공하는 관광지로 전국에서 42개가 운영중이다.

산림청 박종호 기획조정관은 "민간플랫폼과의 다양한 제휴를 통해 산림청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산림콘텐츠를 국민에게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전국에 산재한 명소,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도종환 장관 "공연 현장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 실행할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성수동 '플레이스 비브(Place Vib)'에서 연극 연출가, 극단 대표, 폐교 활용 지역 예술 활동가, 국악인, 피아니스트, 작곡가, 무용가 등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공연단체 및 예술가 지원 정책과 창작·유통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도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난 6월에 발표된 '새 예술정책'에 포함된 공연예술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공연단체 중장기 지원제도 도입, 공연예술 분야 무대기술 표준계약서도입 등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자생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이 공연예술계에 끼친 영향과 공연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안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도종환 장관은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문화예술 정책기본 방향을 토대로, 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는 환경, 공정하고 활력 있는 예술시장과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연예술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연계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과 더욱 소통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장소인 '플레이스 비브'는 국악인, 작곡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이 만나 설립한 벤처기업 ㈜플랜트 삼이오(Plant 325)가 민간투자를 받아 설립, 이달 초 새로 문을 연 곳이다. 예술인들을 위한 음악 및 공연 콘텐츠 제작 녹음실, 스튜디오와, 일반 대중을 위한 식음료 공간을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뉴시스

'세계 경매시장 거래 우리 문화재 연간 2000건 이상'

세계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우리 문화재가 연간 2000건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경매시장에선 보물급 문화재도 매매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문화재 경매 및 매매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외 경매시장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는 2014년 18개국 2732건, 2015년 19개국 3432건, 2016년 19개국 2823건, 2017년 21개국 2934건 등 매년 2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거래 동향을 파악해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문화재 경매 모니터링 사업은 국외시장의 경우 문화재청 내 1인의 담당직원과 2인의 보조인력이 담당하는 있는 실정이다.

국내시장은 모니터링 인력조차 없이 개별 박물관에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6월 말 기준) 지정 문화재(문화재청 지정 국보 및 보물) 소유권 변동 현황을 보면 총 28건(개인 소유)의 보물 문화재가 거래됐다.

이 중 경매시장에 나온 19건의 문화재 중 국립박물관이 구입한 문화재는 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유출되는 데다 국민들의 향유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국외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문화재 중 가치 있는 문화재를 놓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보·보물 등 문화재도 국민들의 향유권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김기덕 "사실관계 명백하게 밝혀지길"

영화감독 김기덕(58)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MBC TV 'PD수첩'과 관련, "익명을 이용한 여론 재판이 아니라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8일 김 감독의 변호인은 "김기덕 감독은 PD수첩 제작책임자, 지난 방송 여배우 A·C를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을뿐"이라며 "해당 여배우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기는 하나 언론에 언급한 적이 없다.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감독은 PD수첩 때문에 수사·재판 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혔다. 개봉예정 영화는 취소됐다. 밖에 나갈 수 없고 밥 한 끼도 사먹을 수 없게 됐다.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 여배우 A·C는 대중에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뿐이다"

변호인은 "방송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배우들은 언론에서 익명으로 하지 말고 수사·사법기관에서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PD수첩은 7일 김 감독, 탤런트 조재현(53)과 작업한 적이 있는 복수의 스태프와 여배우들의 인터뷰를 추가로 내보냈다.

이들은 "김 감독이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같이 자자'고 했다"며 "이를 견디지 못한 신인 여배우가 잠적한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뉴시스